

이슈페이퍼

**대학의 교육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자유학기제 지원을
중심으로**

주취정 · 임혜경

이슈페이퍼

대학의 교육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자유학기제 지원을 중심으로

주희정 · 임해경

대학의 교육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자유학기제 지원을 중심으로

주휘정¹⁾ · 임해경²⁾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I. 대학의 자유학기제 지원 등 사회봉사 현황 분석	3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
IV. 기대 효과	20
참고문헌 및 자료	22
Abstract	24
[부록]	25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배포 역량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학의 시초로 불리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은 배움을 위한 학문공동체로 교육의 기능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대 대학의 모태가 된 19세기 훔볼트 대학에서는 대학의 기능을 연구로 확장하였다. 그리고 1862년 미국에서는 모릴법(Morrill Act)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로부터 토지(land)를 제공받은 주립대학이 세워졌고 대학은 교육·연구 기능에 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봉사의 임무를 띠게 되었다(박연호, 2010, p.52; 손승남, 2011, p.106).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 따라 오늘날 대학은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봉사(service) 3가지 임무(mission)를 대학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gloriachu@krivet.re.kr)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limhk86@krivet.re.kr)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의 단일적 문제 해결 방식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지역에 뿌리를 둔 대학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갈등 없는 평화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조동성·문화창, 2014). 특히,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를 비롯한 초·중등 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확장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시행하고 있는데, 체험을 위한 체험처의 개방과 직업 진로 멘토 및 강사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은 다양한 전공학과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험·실습 기자재 등 안전을 담보한 교육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최적의 체험처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간 대학은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거나 정책시범 사업을 수행하며 자유학기제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교원 및 대학생이 체험을 위한 기자재를 신고 놓여준 도서산간 벽지의 소외된 지역 학교를 찾아 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단기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캠퍼스를 체험의 장소로 개방하였고, 대학생은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자유학기제 체험학습의 보조교사로 임하기도 했다(김승보 외, 2015).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비교적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대학이 교육적 마인드로 일선 학교를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대학생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등 지역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 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student development)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제도 및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축,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학 사례 조사 및 관련자 면담,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학이 본연의 교육 기능을 확장하여 자유학기제 지원 등 지역 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대학 임무, 교육·연구·봉사, 지역사회봉사, 대학생 봉사 학점, 교육봉사

II. 대학의 자유학기제 지원 등 사회봉사 현황 분석

대학은 매년 사회봉사 활동 관련 제도 및 성과 내역을 대학 알리미에 공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지원 현황은 대학 사회봉사 역량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자료를 수집하여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대학의 기본적인 학사제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상정하고, PDF 방식으로 저장되어 대학 알리미 사이트에 업로드 된 각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파일을 2016년 5월 2~6일, 5일간 내려 받기를 실시하였다.

사회봉사 역량 자료는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술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 내려 받은 자료에서 연구진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코딩하였고 최종적으로 64개 대학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 15개교(23.44%)와 사립 49개교(76.56%)였다. 지역별로 수도권 19개교(29.69%)와 지방 45개교(70.31%)였다. 규모별로는 1만 명 미만의 중소규모 45개교(70.31%)와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19개교(29.69%)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유학기제 참여 등 사회봉사 참여를 위한 제도와 관련된 대학의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구분, 수강신청 자격, 개설된 교과목 수, 최대이수 학점, 학점 인정을 위한 봉사시간, 교내 전담 부서 및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황의 차이가 대학 설립유형, 지역, 규모별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다만, 정성 자료를 정량 자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데이터로 인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II-1> 분석 대상

구분		학교 수(개교)	비율(%)
설립유형	국립	15	23.44
	사립	49	76.56
	계	64	100.00
지역	수도권	19	29.69
	지방	45	70.31
	계	64	100.00
규모	중소(1만 명 미만)	45	70.31
	대(1만 명 이상)	19	29.69
	계	6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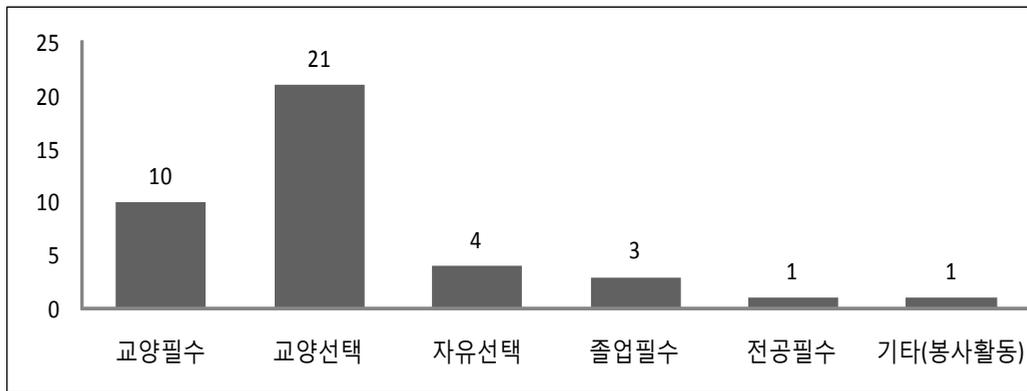
1. 대학의 사회봉사 교과목 현황

대학의 사회봉사 교과목 개설 유무 및 이수 구분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자유학기제 등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교양 혹은 전공으로 분류하거나, 필수 혹은 선택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을 교양선택으로 채택한 학교는 21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양필수 10개, 자유선택 4개 대학이 많았다. 졸업필수로 채택한 대학은 3개교, 전공필수로 채택한 대학은 1개교로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다수의 대학이 사회봉사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졸업·전공·교양의 필수 이수를 지정한 학교도 14개교가 있었다.

[그림 II-1]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구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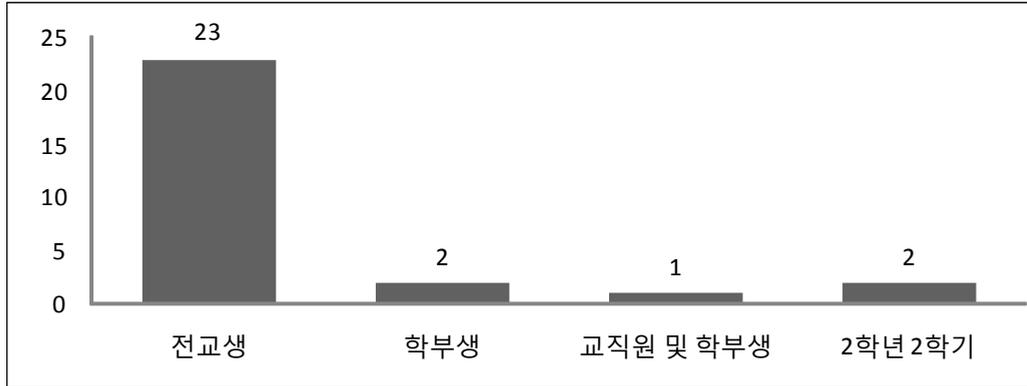


주: 응답 대학 수=40개

대학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신청 대상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부생을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자격대상으로 지정한 대학이 2개교, 특정 학년 및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정한 대학도 2개교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 대학 중 경상대학교는 교직원을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림 II-2]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자격(대상)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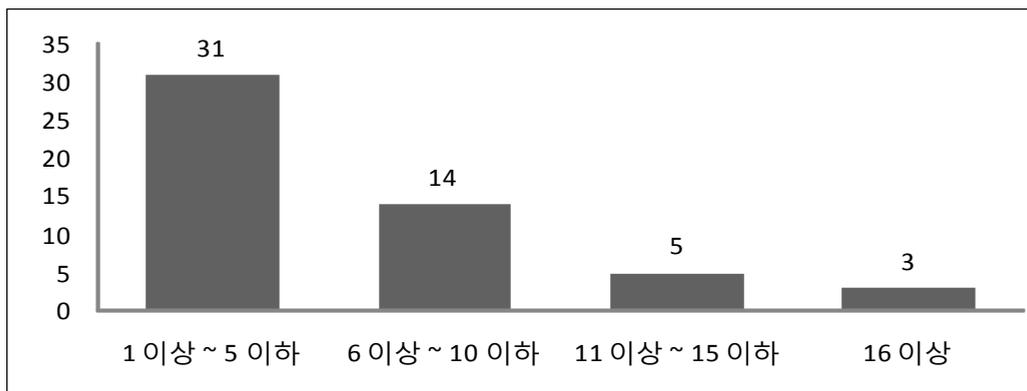


주: 응답 대학 수=28개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31개교가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을 5과목 이하로 개설하였다. 그 다음으로 6과목에서 10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은 14개가 있다. 그리고 11과목에서 15과목을 개설하는 대학도 5개, 16과목 이상 개설하는 대학도 3개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대학이 교양과목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5개 이하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3]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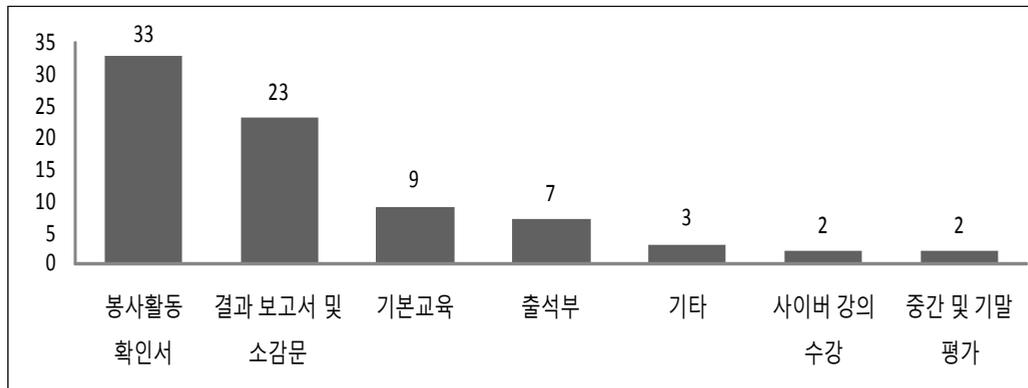


주: 응답 대학 수=53개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의 학점 부여 방법은 교과목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각 대학의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학점 인정기준은 기본교육, 출석부, 봉사활동 확인서, 결과 보고서 및 소감문, 사이버 강의 수강, 중간 및 기말 평가 등이 있다. 대학은 이러한 이수 방법 중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방식을 택해 학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이수 확인 방식은 봉사활동 확인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33개 대학이 봉사확인서를 인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23개 대학은 결과 보고서 및 소감문, 9개 대학은 기본교육, 7개 대학은 출석부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발대식 참여, 결과발표회 등을 채택한 학교도 3개 대학, 사이버 강의 수강과 중간 및 기말 평가를 하는 학교도 각 2개 대학이 있다.

[그림 II-4]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 인정 방법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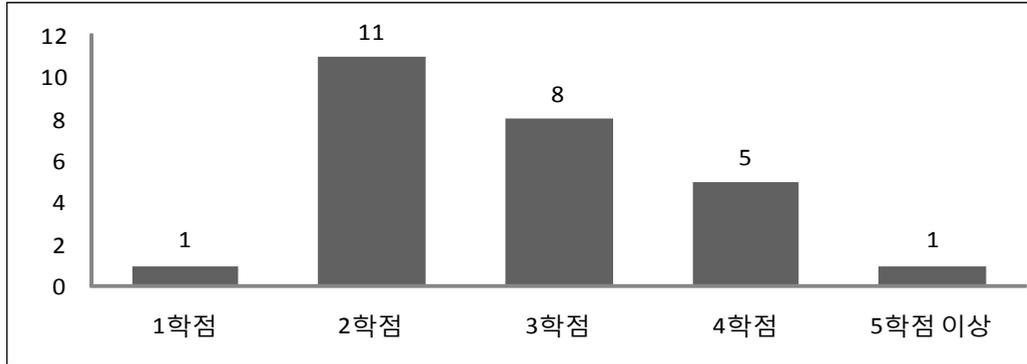
주: 1) 응답 대학 수=64개

2) 복수 응답 가능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 인정은 학교마다 상이하다. 최대 이수 학점이 2학점인 대학이 11개교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학점이 8개교, 4학점이 5개였다. 분석 대상 대학 중 가톨릭 대학은 최대 이수학점은 5학점이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예외적으로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여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장신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전공생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그림 II-5]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최대 이수 학점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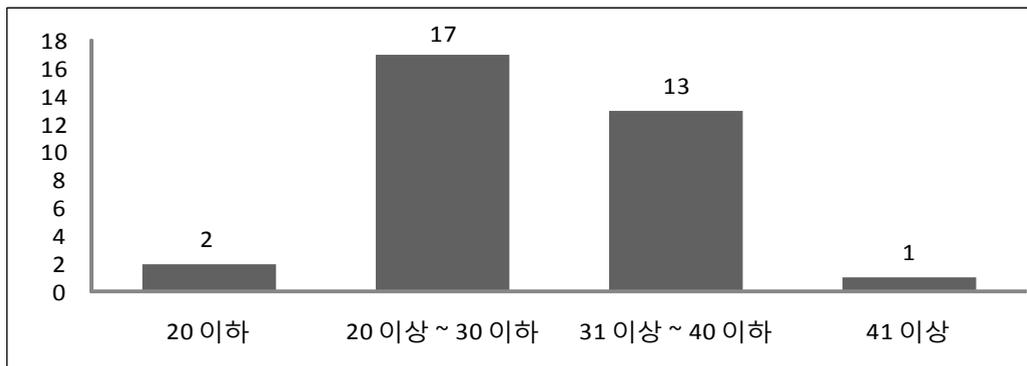


주: 응답 대학 수=26개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봉사시간에 대한 규정도 학교마다 상이하다. 1학점을 부여받기 위해 21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로 봉사시간을 규정한 대학이 17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31시간 이상 ~ 40시간 이하가 13개교, 20시간 이하가 2개교 순으로 높았다. 이 같이 대다수의 대학이 1학점 당 30시간 전후의 봉사 시간을 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과목 이론 수업 참여와 함께 일정 봉사 시간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는 대학생 봉사활동을 교과목이라는 학문 전수뿐만 아니라 직접 대학생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6]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봉사시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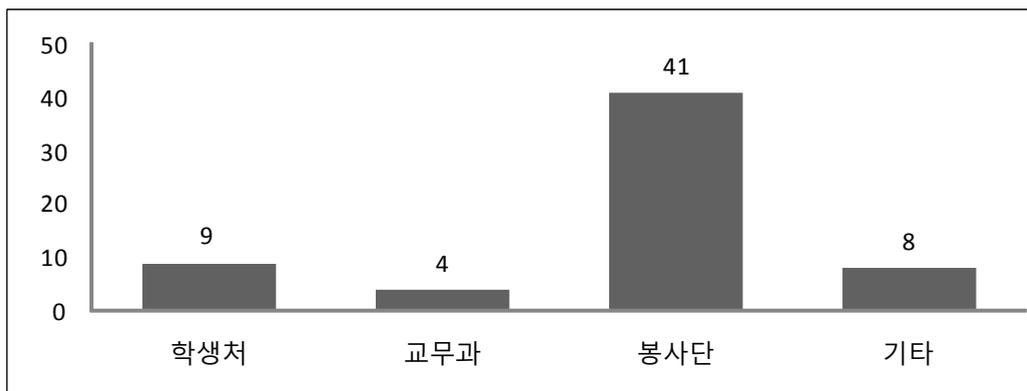


주: 1) 응답 대학 수=33
2) 1학점 당 봉사 시간

대학의 사회봉사 관련 담당부서는 학생처(학생과, 학생지원처 등), 교무처(교학처, 학사지원처 등), 봉사단(봉사지원센터 등), 그리고 기타(사회공헌 센터, 사회복지학과, 리더십센터 등)으로 학교마다 조직 구성 및 역할에 따라 상이하다. 별도의 봉사단(봉사센터)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41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처가 9개, 기타(사회공헌 센터, 사회복지학과, 리더십 센터 등)는 8개로 조사됐다.

[그림 II-7]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전담부서

(단위: 개)



주: 1) 응답 대학 수=62
2) 복수 응답 가능

2.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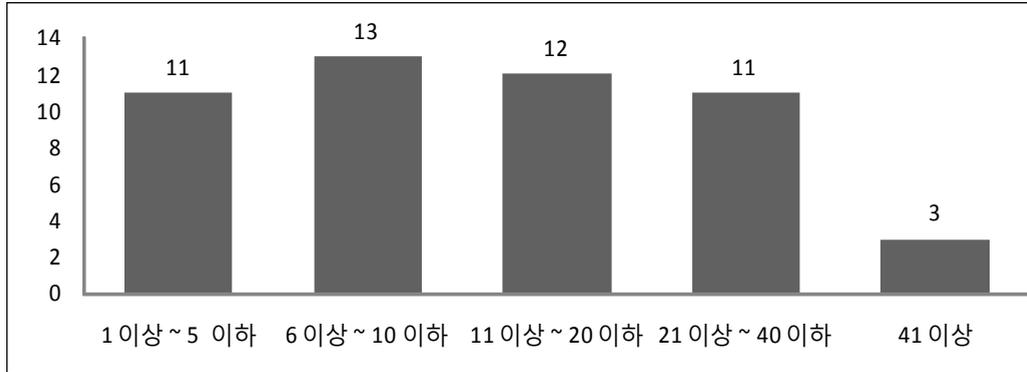
대학은 사회봉사 교과목을 별도로 두고,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교과목 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분석 대상 64개교 중 50개교가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개교는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대학알리미의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자료에 공시정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수를 보면, 프로그램 수가 6개 이상~10개 이하인 경우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11개 이상~20개 이하가 12개, 1개 이상~5개 이하와 21개 이상~40개 이하가 각각 11개로 분석됐다. 대학별로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운영에는 차이가 있으나 11개 이상,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26개로 응답 대학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정규 교과목 이외의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봉사 활동도 적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8]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수

(단위: 개)



주: 응답 대학 수=50개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유형은 크게 교육봉사, 문화·예술·체육, 의료·보건, 생활·가정, 사무·행정, 청소년·노인 대상 봉사, 농촌 봉사, 해외 봉사,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학들이 대학알리미의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에 공시한 정성자료(PDF)를 토대로 프로그램 유형별 세부내용을 정리해보면, 멘토링, 교육기부, 학습 도우미 등을 포함하는 교육봉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학생 활동 도우미, 김장 봉사, 생필품 및 연탄 배달 등을 포함하는 생활·가정 관련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유형

유형	세부 프로그램
교육봉사	멘토링(외국인 유학생, 영어 등), 검정고시 교육봉사, 영어 재능 나눔 캠프, 한국어 도우미, 교육기부 멘토 사업, 과학 캠프,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교육, 전공연계 교육봉사, 기초학력부진아 학습 도우미, 방과 후 학교 등
문화·예술·체육	핸드벨 연주 봉사, 벽화 제작, 생활체육 서포터즈 등
의료·보건	의료 봉사(주말 의료 봉사, 하계 의료 봉사 등) 등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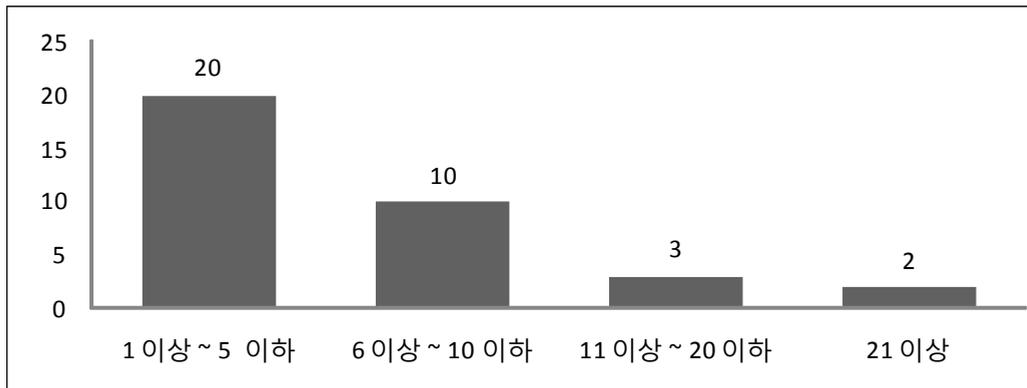
유형	세부 프로그램
생활·가정	장애 학생 활동 도우미, 김장 봉사, 환경 봉사, 생필품 배달, 연탄 배달, 이불 빨래, 한가위 송편 봉사 등
사무·행정	교내보건소 보조 등
청소년·노인 대상 봉사	어르신 효잔치, 고아원 등
농촌 봉사	농촌 봉사 활동 등
해외 봉사	국제교류, 해외봉사, 해외봉사 개발협력, 국제 도우미 등
기타	나눔 바자회, 헌혈, 교직원 봉사, 장애 인식 개선, 폭설 피해, 미아방지 캠페인, 국토순례, 전공연계 봉사 등

3.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현황

대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중 현재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유형의 프로그램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 지원과 연계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5개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20개, 그 다음으로 10개 대학은 6개 이상~10개 이하를 운영하고 있었다. 11개 이상~20개 이하의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도 3개, 2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도 2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9]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수

(단위: 개)



주: 응답 대학 수=35개

교육봉사 관련이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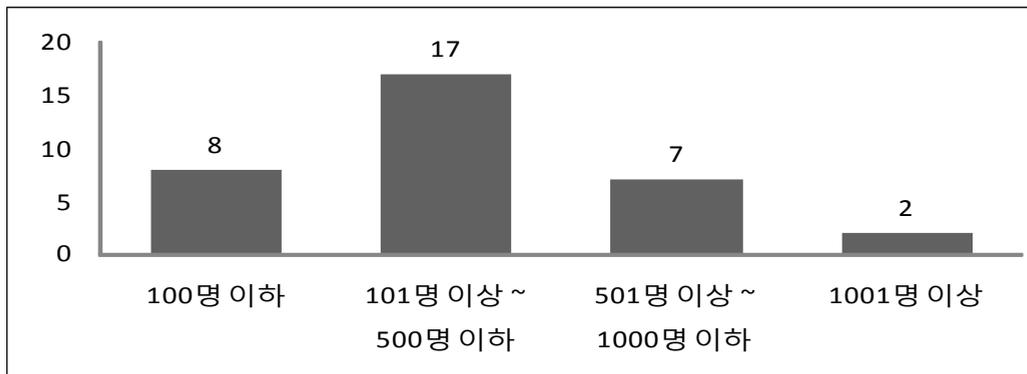
<표 II-3>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자료에 공시된 자유학기제 연계 가능 프로그램 유형

유형	세부 프로그램
교육봉사	대형 강좌 수업지원, 교육기부 멘토 사업, 바람개비 과학교실, 북멘토 교육기부, 지역공부방 봉사, 경제교실, 교직교육봉사, 비행시뮬레이터실습체험
문화·예술·체육	뮤직 바이러스, 굴렁쇠 방과 후 청소년 교실, 북소리 축제, 축구, 미술교육, 클라이밍 지도, 벽화 제작
의료·보건	보건의료 봉사, 구강교육
청소년대상 봉사	청소년 정서 지원, 청소년 리더십 수련회, 다문화아동 대상 봉사, 탈북청소년 멘토링, 소외계층 아동 역량개발
농촌 봉사	사범대 교육농활
기타	단오나들이 봉사활동, 영양캠프 봉사, 직업체험

그리고 상기 제시한 자유학기제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101명 이상 500명 이하가 참여한 대학은 17개, 501명 이상 1000명 이하가 참여한 대학은 7개 대학, 100명 이하가 참여한 대학은 8개였다. 이 중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대학도 2개 있었다.

[그림 II-10]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단위: 개)



주: 응답 대학 수=34개

5. 대학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대학 간 차이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의 과목 수, 봉사시간, 총 이수자,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수와 참여 학생 수,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수 및 참여 학생 수가 대학의 설립 유형, 지역, 규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과목, 교과목 외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각각의 참여 학생 수는 대학 간 최소값과 최대값 간의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학 집단 간 차이 분석에 앞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4〉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과목 수	53	1	58	6.70	8.78
	봉사 시간	49	2	64	31.27	8.16
	총 이수자	51	18	13,480	1,488.10	2,640.05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50	1	250	24.14	45.92
	참여 학생 수	48	30	9,613	1,433.79	1,840.45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35	1	45	6.77	8.48
	참여 학생 수	34	14	1,731	407.03	387.36

대학을 국립과 사립으로 분류하여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대학을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을 지방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지방대학의 교과목 외 프로그램 참여가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규모에 따라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대학의 자유학기제 지원 등 사회봉사 현황 분석

<표 II-5>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별 분석 결과

구분			N	M	SD	평균 차이	t	
설 립 유 형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과목 수 (N=53)	국립	8	7.38	5.93	.797	.234
			사립	45	6.58	9.25		
		봉사시간 (N=49)	국립	12	25.50	8.66	-7.64	-3.051
			사립	37	33.14	7.15		
		총 이수자 (N=51)	국립	8	868.00	858.09	-735.47	-.720
			사립	43	1,603.47	2,843.92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N=50)	국립	10	35.50	75.76	14.20	.873
			사립	40	21.30	35.82		
		참여 학생 수 (N=48)	국립	9	852.33	772.89	-715.64	-1.053
			사립	39	1,567.97	1,991.28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N=35)	국립	7	9.71	15.70	3.68	.610*
			사립	28	6.04	5.74		
참여 학생 수 (N=34)		국립	6	422.00	402.62	18.18	.103	
		사립	28	403.82	391.55			
지 역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과목 수 (N=53)	수도권	18	6.33	6.66	-.552	-.215
			지방	35	6.89	9.78		
		봉사시간 (N=49)	수도권	14	33.79	9.20	3.53	1.380
			지방	35	30.26	7.61		
		총 이수자 (N=51)	수도권	16	1,319.94	1,578.31	-245.03	-.305
			지방	35	1,564.97	3,021.83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N=50)	수도권	16	15.06	9.46	-13.35	-.958
			지방	34	28.41	55.06		
		참여 학생 수 (N=48)	수도권	16	812.06	586.23	-932.59	-2.279*
			지방	32	1,744.66	2,161.01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N=35)	수도권	13	6.08	4.94	-1.10	-.368
			지방	22	7.18	10.10		
참여 학생 수 (N=34)		수도권	13	335.00	282.45	-116.62	-.849	
		지방	21	451.62	440.74			
규 모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과목 수 (N=53)	중소규모	34	5.56	5.64	-3.178	-1.271
			대규모	19	8.74	12.56		
		봉사시간 (N=49)	중소규모	33	30.76	5.06	-1.555	-.622
			대규모	16	32.31	12.52		
		총 이수자 (N=51)	중소규모	32	1,247.91	2,505.43	-644.73	-.841
			대규모	19	1,892.63	2,876.60		

<표 계속>

구분			N	M	SD	평균 차이	t	
규모	사회봉사 교과목 외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N=50)	중소규모	34	28.38	55.12	13.26	.951
			대규모	16	15.13	8.79		
		참여 학생 수 (N=48)	중소규모	33	1,333.06	2,010.64	-322.34	-.558
			대규모	15	1,655.40	1,433.40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N=35)	중소규모	22	7.32	10.23	1.47	.491
			대규모	13	5.85	4.38		
		참여 학생 수 (N=34)	중소규모	22	263.45	274.22	-406.80	-3.349
			대규모	12	670.25	435.62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 연구는 대학 알리미에 제시된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대학의 사회봉사 관련 제도, 지원부서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현황 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학의 공개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연구 분석의 한계가 있었으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정책 동향 및 제도분석, 대학 관계자 및 대학생 면담,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보완하였다(부록 참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대학의 사회봉사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봉사 교과목 현황 및 교과목 외 프로그램 현황 등을 살펴 본 결과 대학의 제도와 자유학기제 지원과의 연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마련되어 있는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이나 교육봉사 교과목의 다수는 학생 개인의 노력에 의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각 대학의 내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나 졸업인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즉, 지역 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학교와 학생을 체계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학 기관 차원에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경우

에 한해서도, 몇몇 대학에서만 학생 봉사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 외부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학교별 참여 방법, 참여에 따른 인정 기준, 학생 인센티브 등도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단 운영의 높은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봉사 제도와 자유학기제 등의 교육 봉사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내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회봉사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자유학기제 등 일선 학교와 연계한 교육봉사 관련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봉사 교과목이 대학생의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적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봉사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봉사의 활동 범위가 넓고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봉사 의식 등과 같은 공통 교육 내용을 제외하면 세분화된 사전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타의 전공교과목과 같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깊이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러한 교과목 중에서 교육 관련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고 최소한의 교수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현장에 나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의 사회봉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정성자료인 대학알리미의 사회봉사 역량 자료를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대학 간 표기 방식이 상이하고, 정량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웠기에 분석 대상을 크게 확보하지 못하였다. 사회봉사 역량 자료는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자료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도 없다. 그러나 대학알리미 자료를 통해 대학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학에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 정보가 요구된다. 대학알리미 사회봉사 역량 자료의 체계화에 대해서는 김매이 외(2014)의 연구에서도 제안된 바 있는데, 사회봉사 활동에 따라 지원부서가 대학 내부에 여러 군데이거나 대학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대학 재정지원 정책과의 연계는 일시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 대학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공헌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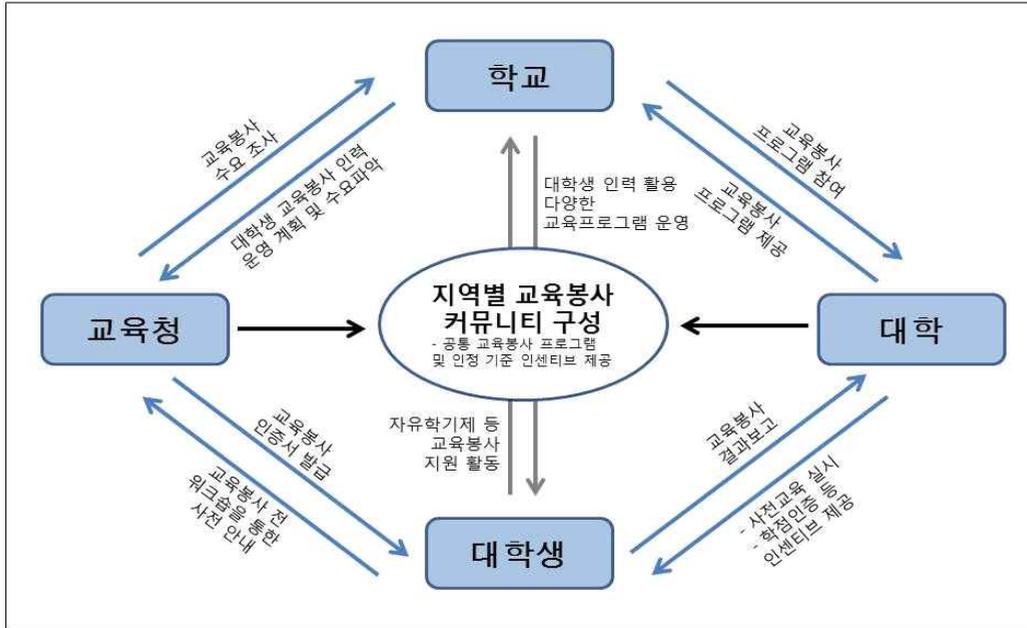
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이나 기구 혹은 지속가능한 담당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정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사업단이나 산학협력단과 같이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과는 관련성이 낮은 부서의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LINC 사업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이 가능하나, 대학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자유학기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사회봉사 활동이 쉽게 중단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학 기관 및 구성원의 교육기부 문화 조성 및 대학 리더십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 개선 방안

앞서 제기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등 대학의 교육봉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봉사 등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지역별 체계 구축이다. 대학의 사회봉사 참여의 특징은 대학생의 자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화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자유학기제 지원의 경우 각 시, 도 단위별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대학은 개별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거나 교원 및 학생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자유학기제 계획을 일선 중학교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자유학기제 시행 2~3개월 전에는 자유학기제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따라서 대학생 지원 인력의 양적, 질적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해당 지역 내 대학에 일선 학교의 수요를 공지하고 각 대학의 지원 인력을 요청, 대학생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발 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안전 및 성희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자유학기제 지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파견 대학에서도 기본적인 봉사 관련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Ⅲ-1] 대학생 자유학기제 등 교육봉사 지원을 위한 지역 체계(안)



둘째, 지역 단위에서 사회봉사 교과목의 하나로 교육봉사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여 자유학기제 등 교육봉사 지원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 단위의 조직화된 체계 속에서 대학생 지원단을 운영한다면, 봉사 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별 자유학기제 등 교육봉사 관련 공통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인데, 지금은 각 대학별로 교육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학교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고 인정 범위도 다른 한계가 있다. 또, 소규모 대학의 경우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정된 대학에서 교과목을 수강하고 지역 대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강좌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대학의 근로 장학생 중 일정 비율의 학생을 자유학기제 지원인력으로 지정하여 교육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생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 맞춤형 공통 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사회봉사 인정 방법 중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방법이 ‘인증서’이다. 즉, 대학이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일일이 기준을 정하여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고, 다양한 봉사 활동에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인정 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지원과 같이 교육봉사의 목적, 대상 및 봉사자의 역할 범위가 명확한 경우는 지역별 특징을 감안하여 인증을 위한 표준화가 가능할 것이다. 공통의 교육봉사 교과목을 개발하여 사전/사후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화된 봉사활동에 대해 지역별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각 대학은 이를 신뢰할 수 있고, 또 각 대학은 기존 제도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알리미의 사회봉사 역량 자료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대학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계획 등 대학 고유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료는 모두 정성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의 경우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대학과의 연계성을 원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내역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대학 정보공시에는 필수적으로 지정한 정량적인 공시 항목과 지표의 제한이 있고, 대학의 자율성이 매우 강한 사회봉사 역량 자료까지 모두 정량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활동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환 외(2011)의 대학봉사 체계(안)에 따라 사회봉사 활동 내역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원하는 단체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부서 혹은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조직화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 내부 실무자가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학생, 교원, 그리고 지원이 요구되는 기관과 단체에 모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학알리미의 사회봉사 역량 자료의 예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2]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예시

공시자료 예시(안)

<p>① 사회봉사의 목적 및 대학별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대학에서 사회봉사를 통해 학생 개인의 발달 및 지역사회 기여 등과 관련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제시 - (특징) 대학별 특징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하고, 가능한 양적인 표현을 사용 <p>② 사회봉사 체계 및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부서) 도표화된 조직도를 제시하고, 업무내용 및 연락처를 기입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의 사회봉사 전담부서 조직도》</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사회봉사센터장] --- B[운영위원회 (10인 이내)] B --- C[자원봉사교육 및 연구] B --- D[사회봉사 과목 운영 및 관리] B --- E[교내외 자원 봉사 관리] </pre> </div> <p>③ 사회봉사 분류체계별 전년도 연간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 교과목 현황) 과목명, 담당교수, 학기, 학점, 수강인원, 이수인원 등의 내용을 포함 - (분류 체계) 주관단체에 따른 분류(1차 분류), 보상 및 장려 정책에 따른 분류(2차 분류), 봉사 지역에 따른 분류(3차 분류), 봉사 성격에 따른 분류(4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동아리) 봉사동아리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봉사동아리 담당 교직원 및 학생의 연락처를 기입 - (대학 연계 안내) 대학과 사회봉사를 연계하여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안내 - (분류 체계별 봉사 내용)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국내 봉사, 해외 봉사), 국내 봉사(지역 내 봉사, 타 지역 봉사), 지역 내 봉사(교육봉사, 문화체육봉사, 보건봉사, 환경 봉사, 생활도우미 봉사, 재해복구 및 건축 봉사), 타 지역 봉사(농촌 봉사, 캠프 봉사, 건축 봉사, 의료 봉사) <p>④ 사회봉사 관련 대학의 지원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방법) 가급적 상세히 기술하고, 가능한 한 양적인 표현을 사용 - (인정 및 보상 방법) 인정 및 보상 방법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하고, 대학의 사회봉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어날 기대 효과 제시 <p>⑤ 차년도 사회봉사 계획 및 지원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학기별 또는 분기별 사회봉사 계획을 상세히 기술 - (규모) 사회봉사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상세히 기술하고, 가능한 한 양적인 표현을 사용
--	--

넷째, 대학이 지역의 교육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체험처로 캠퍼스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학의 자유학기제 지원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은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의 일부로 국고 활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하여 소위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실적 위주의 자유학기제 지원 활동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선 학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교비의 일정 부분을 교육봉사 등에 투입할 수 있는 내부 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등록금 인하 정책 등 재정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전폭적인 투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의 재정지원 사

업은 대학 평가와 연계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이고 순수한 교육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대학의 교육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학의 교육봉사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학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교비의 일정 부분을 교육봉사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도 대학생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지원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경우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국가장학금 등 대학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중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중 교통비를 토대로 왕복 3천원, 식비는 학교 급식비를 기준으로 평균 대략 4,000원 선이 가능할 것이다.

IV. 기대 효과

앞서 논의한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와 제언을 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자유학기제 등 교육봉사 체계화를 통해 지역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회 각계 각층의 지원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단위에서의 조직화,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험처 발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 체계는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지역 체계는 체험학습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사회봉사 교과목의 하나로 교육봉사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게 되면 자유학기제 등 교육봉사 활동을 보다 전문화, 체계화, 조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 등 교육봉사는 대학생 자율 동아리의 활동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자생적 동아리의 경우 중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원하는 시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단발적인 교육봉사의 경우 학생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심리적 보람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교육봉사 등 자유학기제 지원의 교과목을 개발하여 지역 내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나 조직적인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학알리미 정보 제공의 편의성을 증진하면 대학 내부 실무자가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학생, 교원, 그리고 지원이 요구되는 기관과 단체에 모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는 2016년 국가근로장학사업 계획을 통해 국가근로장학생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모두 개별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가 work-study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을 학교 교육 현장에 투입한 것과 같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근로장학사업을 디자인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지원은 교육봉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지원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많지만, 대학생 참여 성과와 대학생 지원을 통한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후속연구로 참여 대학생 및 수혜 학생들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면 향후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사전교육 방식과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의 활동과 역할 범위를 상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참고문헌>

- 김매이 · 이환 · 황희윤 · 김은혜(2014). 대학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2013-49.
- 김승보 · 박태준 · 주휘정 · 김이성 · 이효영 · 함숙경(2015). 현장 체험 활동 지원 인력풀(시니어, 학부모, 지역대학)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연호(2010). 자유교육의 전통에서 본 하버드대학의 교양과정 개혁, 교육사상연구, 24(2), 41-69.
- 손승남(2011).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이념 형성과정, 교육사상연구, 25(3), 97-117.
- 이환·조수연·김매이·정효경(2011). 대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분석과 분류체계 제안, 교육행정학연구, 29(3), 1-23.
- 조동성 · 문휘창(2014). 『대학의 사회적 책임』, 서울:서울경제경영.

<기타 참고자료>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참고문헌-부록>

- 교육부(2014a). 대학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부(2014b).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
- 교육부(2014c).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
- 교육부(2015). 교육부 조재익 과장이 설명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97&nttId=4574. 2016년 6월 13일 내려받기.
- 교육부(2016). 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 김성준(2002).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발전방향: 대학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3, 109-122.
- 김승보 · 박태준 · 주휘정 · 김이성 · 이효영 · 함숙경(2015). 현장 체험 활동 지원 인력풀(시니어, 학부모, 지역대학)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현주(2016). 인문교양 수업을 활용한 대학생의 지역 봉사 활동에 관한 연구 - '인문재능

- 기부단'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0(1), 41-70.
- 서경혜 · 최진영 · 김수진 · 이지영(2013). 예비교사 교직 인성 분석: 재학기간, 교육실습, 교육봉사 및 진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0(2), 305-328.
- 이환·조수연·김매아·정효경(2011). 대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분석과 분류체계 제안, 교육행정학연구, 29(3), 1-23.
- 조석훈(2008). 교사양성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실습의 가치, 교육행정학연구, 26(2), 317-342.
- 한국연구재단(2015). 자유학기제 확산 등을 위한 LINC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개정(안).
- 한혜숙 · 이화정(2014). 대학생의 교육기부 활동에 관한 인식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255-283.
- Cohen, P.A, Kulik, J.A., & Kulik, C.C. (1982). Educational outcomes of tutoring: A meta-analysis of finding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 237-248.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2005). How colleges Affects Students. 2nd ed. MA: Jossey-Bass.
- Fitzgerald, J. (2001). Can minimally trained college student volunteers help young at-risk children to read better?, Reading Research Quarterly, 36(1), 28-47.

Abstract

A study on volunteering programs for 'free semester'(jayuhakije)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Chu, Hui-Jung

Lim, Hae-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olunteering programs for 'free semester'(jayuhakije)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The free semester system fosters young students' creativity and talent by freeing them from severe competitions as the program prioritizes intensive discussions in the class and field trips over written tests. Given the lack of social educational resources to provide useful field trips, success of the free semester comes from assertive outreach program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examine college programs for free semester and to measure students' involvement, this study collected data 'social service competency', a PDF document written by individual colleges with free style by downloading from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the website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on colleges and universities. This study reviewed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volunteering programs, requirements for credit and for graduation and extra-curricular volunteering activities across types of establishment, region, and size. In spite of authors' best efforts, the loss of data during transforming qualitative documentation into quantitative data change remains limitations of statistical analysis. Therefore, the authors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s, interviews and seminars as well.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upporting a free semester program is the college's systematic efforts with emphasis on students' participation in social volunteering programs. Further detailed suggestions are discussed in the paper in order to encourage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prepare better services for the free semester.

부 록

[부록 1]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검토

대학생 봉사를 통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검토가 가능하다. 먼저, ‘대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이 학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학이 사회문제에 깊이 관여하여 대학의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설립 목적인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교육 활동이어야 학생과 대학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경력이 없거나 약간의 경험을 가진 대학생이 지원하는 교육 활동이 자유학기제 대상의 중학생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있을 것인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비전문 교육가의 교육활동이 피교육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봉사 활동 등 대학생의 사회적 참여는 대학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scarella & Terenzini(2005, p.277-279)는 대학생의 발달 과정에 관한 광범위한 선행연구들을 종합·검토하였다. 이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참여 활동이 다양하여 정확한 추정의 한계는 존재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나 수많은 고등교육 이해 당사자(stakeholder)들이 대학 구성원인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기관 차원의 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사회적 참여활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목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역사회봉사 관련 활동 커리어를 가질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비록 사회적 참여가 많은 학생일수록 졸업연한이 늘어나는 경향은 있지만, 역량증진(empowerment), 사회적 효능감(social efficacy) 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언급하였다.

국내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대학생의 사회적 참여는 학생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혜숙이화정(2014)은 대학생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봉사 의식’, ‘학습동기 및 진로계획’, ‘핵심역량’, ‘행복지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참여나 사회봉사 의식이 증가하고,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등의 심리적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소통능력, 대인관계 역량 등 핵심역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사범대학의 교육봉사 활동을 조사한 서경혜 외(2013)의 연구에서 교육봉사 과목의 수강 여부는 교직 인성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교육봉사를 하지 않은 예비교사 집단과 60시간 초과인 집단, 교육봉사 시간이 60시간 이하인 예비교사 집단과 60시간 초과인 집단 간에 교직 인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교수(teaching)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거나 약간 있는 대학생이 가르치는 경우라도 교육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각 교과목마다 교수 전략이 다르고, 학생 개인의 차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매우 다양하며 교육 성과 정도도 다르다. 그러나 교수 경험과 경력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면(eg. Cohen, Kulik & Kulik, 1982 참조),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분명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대학생의 교수 활동도 피교육자인 학생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대학생의 교육봉사에 대한 긍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1996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America Reads Challenge (ARC)’ 프로그램을 만들어 근로 장학생들(work-study students)로 하여금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읽기 튜터(reading tutor)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ARC 프로그램은 빈민 지역 학생의 문해력이 낮아, 성인이 된 후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는 악순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학생 튜터를 선발, 교육, 파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ARC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약 33시간의 유료교육을 받고 학생 튜터로 파견되었는데, 빈민지역 학생들의 문해력 변화를 관찰한 결과 평균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한 학생(at-risk), 1, 2학년의 읽기 능력이 향상되어 교수 경력이 거의 없는 학생 튜터의 교육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주었다(Fitzgerald, 2001).

국내연구에서도 김현주(2016)는 대학의 교양필수과목의 수업내용을 재구성하여 인문교양수업과 연계한 지역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교내 인문교양 교과목과 봉사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인문교육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

생들이 계획서 작성부터 활동 마무리까지 스스로 모든 기획을 해나감으로써 적극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과 동시에, 초·중등 학생에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2. 대학의 사회봉사 지원을 위한 정책 동향

대학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법령에 기초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보장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이 근간이 되며, 이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 특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도록 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법 제11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법 제6조), 대학생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적용된다(교육부, 2014a).

둘째,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1996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회)가 설립되었다. 1997년 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대사회³⁾은 지난 20년간 회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현재 258개 대학이 회원 대학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사회는 대학을 비롯한 기업, 사회적 단체, 대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사회봉사 활동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일, 대학 교육과정과 사회봉사 연계에 관한 연구,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 그리고 회원 대학들 간의 상호 협조를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4a). 그러나 대사회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대학 간 연계가 강하지 않아 사범대학 차원의 활동은 미약하다.

셋째, 고등교육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2015)는 전문대학, 대학의 자유학기제 지원 실적을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표에

3)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http://kucss.or.kr/>)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3년간 실천해 왔다. 예를 들면, 고교-대학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학생 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교 정상화 기여 대학 사업’을 추진하였다(교육부, 2014b). 대학이 일선 학교 현장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데, 이 사업은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유학기제의 목적 및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은 크게 학생 교육 활동 지원, 대입전형 역량 강화,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그리고 대학 자율항목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예산으로 자유학기제 지원과 진로·전공 체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대학의 자유학기제 지원 실적은 사업의 성과 평가에 반영된다.

그 밖의 고등교육 정책 사업 중,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는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자유학기제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2014c)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대학 특성화 사업단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 특성화계획(35점)의 세부 심사 항목에 5점 배점으로 ‘4.5.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지표를 두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산업협력 선도 대학(LINC) 육성 사업을 통해서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이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15).

넷째, 대학생의 자유학기제 지원 인력풀을 확보하고 참여 학생의 직접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의 자유학기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6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학 인근 중학교가 대학생 멘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 장학생을 적극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교육부, 2016).

다섯째, 정부는 2011년도부터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학 정보공시제를 활용하여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 대학 정보공시의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공시정보 항목에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을 공시정보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으로 하여금 매년 4월 연 1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을 대학 공시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학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3. 대학의 교육봉사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지원 정책 시범 사업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봉사 활동은 교직학점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조석훈, 2008)⁴⁾. 이와 같이 교원양성기관(교원대학,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교직학점 인정제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생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활동을 인정해 주고 있다(교육부, 2014a). 교육봉사 활동은 대학생의 교직 인성을 함양하고 예비교사의 현장 체험을 강화해 주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대학생의 교육봉사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지원 정책 사업을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이 학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사범대생의 봉사 학점 의무화를 비롯하여 대학생 봉사단, 봉사동아리, 교직원 봉사 등 다양한 우수 인력을 보유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내실 있는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이 수행되었다(김승보 외, 2015). 시범사업은 충청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생 37명의 지원을 받아 최종 31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충청권 6개 대학에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였다. 참여 대학생은 교생과 같은 역할 수행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예비교사로서의 교직에 대한 직업 소명의식을 고양하고, 향후 현장 체험활동 지원 보조 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대학생의 수업, 시험 등의 유동적인 스케줄로 1개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생실습과는 달리 고정적인 수업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승보 외, 2015).

4) 「유아교육법」제22조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과「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서는 교원의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동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3]은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정교사 및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에 대하여 교원자격 이수에 필수적인 교직과목 22학점 중 교육실습을 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면서, 교육실습 가운데 ‘교육봉사 활동’을 2학점 이내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부록 2] 대학의 자유학기제 지원 등 사회봉사 사례 분석

1996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창립되고 사회봉사에 대한 대학들의 인식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현재 많은 대학들은 ‘사회봉사’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운영하여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수는 증가하여 왔다(김성준, 2002). 이환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진행된 221개 대학의 봉사 프로그램 중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교육활동 비중은 전체 615개 프로그램 중 131개로 21%를 차지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 가운데 자유학기제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봉사 활동은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실습 교과목으로의 일환으로 참여하거나 사범대가 아닌 대학생들도 다양한 방식(멘토링, 캠프, 방과 후 지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세 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문화적 토양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1. 대학 소개

선정된 세 개의 대학 중 두 개의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한 개의 대학은 충청권에 있는 대학이다. 모두 사립 종합대학으로써 사회봉사 활동에 진취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책임자를 만나 봉사에 대한 인식과 문화, 제도, 내용, 인정 기준, 자유학기제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부록-1>과 같다.

<표 부록-1> 대학 소개 및 사회봉사 교과목 현황

	A대학	B대학	C대학
설립	사립	사립	사립
위치	수도권	수도권	충청권
재학생 수	약 12,000명	약 11,000명	약 7,000명
사회봉사 교과명	사회봉사 I, 사회봉사 II, 사회봉사 III	사회봉사	사회봉사 I (필수), 사회봉사 II (선택)
교과목 구분	교양선택	교양필수	교양필수

<표 계속>

	A대학	B대학	C대학
교과목 운영방식	이론수업(학교수업과 인터넷수업) 6시간 + 사회봉사 활동 26시간 이상 수행 (총 32시간으로 운영)	소양교육 4시간 + 사회봉사 활동 30시간 이상 수행	학기 중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이론교육 시간 포함)
학점	1학점, 최대 3학점 이수 가능(Pass/Fail)	1학점, 최대 4학점 이수가능(Pass/Fail)	1학점, 최대 2학점 이수가능(Pass/Fail)
비고	여대, 사회봉사 관련 전담기구 존재	사회봉사 관련 전담기구 존재	사회봉사 관련 전담기구 존재

2. 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소개

가. 교과목 운영 배경 및 현황

선정된 세 개의 대학 모두 사회봉사 교과목과 사회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조직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차원에서 사회봉사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봉사활동을 강제해야 하는지는 대학마다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교양필수로 지정한 학교에서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불만을 수용해서라도 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C대학의 경우 특이한 점은 대학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사회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일단 학생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어요. 기초필수로 넣는다는 게 반감을 좀 사잖아요. 약간의 자율권을 준거요. 일반 교양과목으로 넣고 자기가 4년 동안 하고 싶을 때 한번만 하면 되거든요. 강제로 시키지만 한 번 해봄으로써 사회봉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자기 마인드 변화가 생겨야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시켜보는 거죠.(B대학 담당자)

사회봉사 교과목의 교육적 의미는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봉사활동을 해서 학점을 주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는 이 교과목을 통해서 학생이 개인의 봉사자로서 태도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C대학 담당자)

그러나 교과목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대학생들이 봉사자의 마음을 느끼기도 전에 강제성과 부담감을 먼저 안고 시작하여 마음으로 우러난 봉사활동에 전념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봉사시간 30시간을 채워야만 기숙사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사회봉사 활동이 기숙사를 지원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규정, 추가학점, 스펙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회의 공익적 요구에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을 선택하기도 한다. 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짐을 나누어 함께 가야 하겠다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특히, 교육봉사의 경우 대학생들이 경험했던 익숙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다가가기에 거리감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교육봉사를 요청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의 학습지를 점검하는 일일 선생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저를 선생님이라 대해주며 따르던 아이들에게 얻어가는 따뜻함을 잊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봉사자는 무언가를 주고 도움을 줘야만 된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기관에서, 좋은 사람들과 나눈 교류가 제일 좋았습니다.

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예비교사로서 교육봉사 활동 과정에서 교육현실을 이해하며 교사로서의 자질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나. 이론교육

사전교육은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이론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자세를 갖추는 데 목표가 있다. B 대학의 경우 1학점에 봉사 30시간 이상으로 이론교육을 12시간 이상으로 이수해야 하며(사전-중간-사후) A 대학은 기본교육 2번으로 학기 초와 중간평가를 통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사전교육과 중간에 토의하는 시간은 대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서로 활동했던 시간들을 공유하면서 봉사자로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일단은 이론수업 기본교육 두 번을 하고요. 활동을 하는 학기 중간쯤에 중간 평가를 해요. 평가라는 게 교수님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하기보다 토의하고 서로 활동했던 것들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힘들었던 점, 생각과 달랐던 점, 그리고 내가 봉사자로서 어땠는지 돌아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마지막에 학기말에 총평가를 하면서 학생들도 자기의 활동이 어땠는지 돌아보고 기관이 어땠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A대학 담당자)

사전교육을 비롯한 이론교육은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와 취지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여 대학생들이 봉사자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활동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봉사자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을 다지는 데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봉사를 하기 전,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대학생인 봉사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관과 봉사자 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쁜 대학생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때 상처를 받는 것은 봉사를 받는 수혜자들이다. 철저한 이론교육과 중간점검을 통해서 상호간 이해를 돕고 발전하는 프로그램이야말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팀을 같이 꾸려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학생들이 캠프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고 학생으로서의 과제와 겹쳐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 봉사기관에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역할이나 봉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을 위한 그 장소의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봉사활동에 포함이 된다. 단지 행정부서에 대한 일반 청소는 언제든지 사회봉사단에 연락을 해라. 사회봉사단에서 기관조율을 준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B대학 담당자)

3. 사회봉사-자유학기제 연계

가. 자유학기제 지원 현황

사회봉사와 자유학기제 연계는 3개 대학 중 1개 대학만 수행하고 있었다. 사회봉사 활동이 활발한 대학이라 할지라도 자유학기제를 사회봉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B대학은 2015년에는 교육부 지원을 받아 입학처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6년은 정부 예산이 급감하면서 사회봉사센터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B 대학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예산 문제로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봉사 센터에서는 도서벽지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저희들도 포기해 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아까운 거죠, 프로그램이. 사회봉사단 일을 하다 보면 계기가 있으면 학생들을 도와주는 개념이잖아요. 이걸 못하게 되면 아까워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건데 축소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B대학 담당자)

프로그램 내용은 대학생이 농산어촌 학교를 방문하여 중학교 교사의 요청에 따른 활동을 한 후,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방문하여 교수님 특강, 대학 탐방 등이 이루어진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며 대학생들은 멘토, 현장견학을 위한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농산어촌 학교에 방문하여 사전조사 및 기획부터 실행까지 대학생들이 해당 교사와의 협조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쪽 중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B대학에서 다 진행해 주세요.’ 하면 그럼 그냥 멘토링하는 학생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곳에 공장탐방을 하게 되면 저희 학생들이 가서 그 학생들을 2대1이나 1대1로 같이 탐방을 하는 거죠. (B대학 담당자)

대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동아리 차원에서 단체로 지원하거나 개인적으로 봉사를 신

청한다. 동아리는 전통적인 행사 차원에서 이어져 오는 활동으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학교와 연계해 왔으며, 프로그램 운영 및 멘토링 활동에 대한 노하우들이 선배로부터 전해오고 있기에 전문적인 교수방법을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대학생 특유의 장점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진로체험 학습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자유학기인 중학교 학생들은 진로상담을 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실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예체능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짧은 기간 동안 악보를 못 보던 학생들이 악보를 보게 되었고, 간단한 연주지만 합주가 되는, 그런 게 동영상으로 촬영이 됐을 때 그런 걸 보고 과정에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관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합창부도 마찬가지로.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은 체육, 축구 같은 거에 소극적인, 잘 안 하던 아이들이 언니 오빠들이 같이 재밌게 하니까 나중에는 경기에 참여하고, 한 학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 적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좀 뿌듯하죠. (B 대학 담당자)

대학생들이 경험한 진로체험 학습과 같은 교육활동은 타인을 가르치는 생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신중함, 뿌듯함, 보람됨을 얻게 되고,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 더불어,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며,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키워주는 자기발견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나. 사회봉사-체험 연계 가능성

대학은 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체험처이며, 초·중·고와 같은 공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하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인력과 체험처가 요구되며,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대학생들은 체험처 발굴 및 관리를 지원하고, 체험처 설명, 안전한 이동, 현장 멘토링 등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B 대학은 각 중학교의 요청에 따라 멘토단, 캠프 기획, 안전 요원 등 대학생들의 역할을 달리하여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핵심 지원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봉사 학점의 의무화를 비롯하여 대학별 대학생 봉사단, 봉사동아리, 교직

원 봉사 등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와 C 대학 역시 진로체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며, C 대학은 [전공 연계 프로그램]으로 매학기 공모를 통해 학과별로 지역사회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식품영양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의류학과 학생들은 본인들의 전공을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으며,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의 아이들이 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영상미디어 전공 학생들은 학생들과 함께 캠코더와 슬레이트 등 촬영기기의 간단한 촬영방법을 가르치고 기획안을 작성한 후 직접 촬영해 보게 한다. 진로체험의 기회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을 통해 영상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학과에서는 만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기본데생이나 드로잉을 연습하고 캐릭터 그리기 실습을 통하여 캐릭터 창작을 체험한다.

내 전공 프로그램, 의류학과는 옷을 지어드리고 컴퓨터학과는 모바일 관련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든지 지역아동센터 애들한테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C대학 담당자)

학과체험 운영 사례는 전공 강연 및 학과체험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 중인 학생봉사단을 기반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체험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공지식이 풍부한 대학생 멘토들이 들려주는 전공 강연 및 진로멘토링을 바탕으로 한다. 학생들은 전공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해 보면서 실천감을 익히며 비록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아닐지라도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줌으로써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건설적으로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저자 약력

- 주취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임해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대학의 교육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자유학기제 지원을 중심으로

- 발행연월일 2016년 6월 28일 인쇄
2016년 6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이 용 순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339-2080-8 93370
- 인 쇄 처 (주)서보미디어 (042)822-2600